

설악의 五色이 부처님을 둘러싸다

단풍이 아름다운 사찰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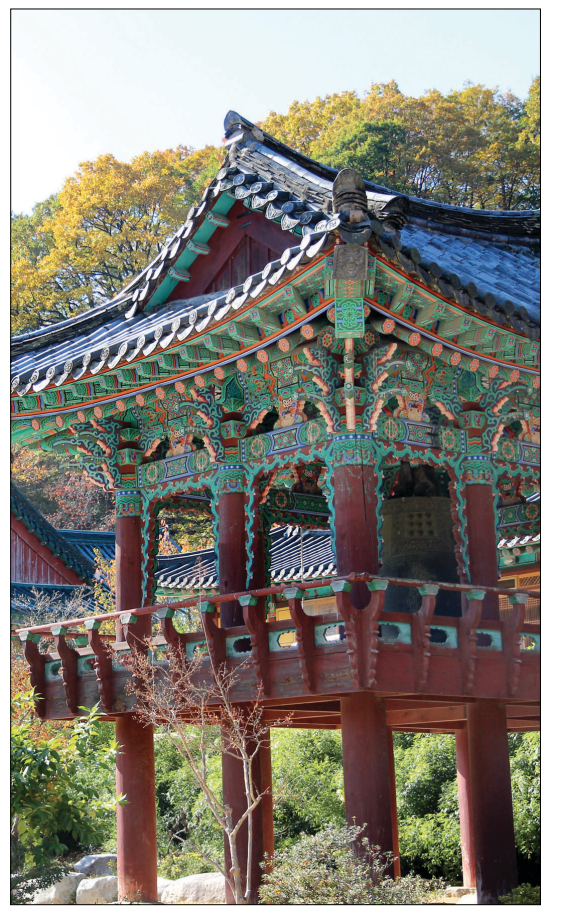
① 설악산 속초 신흥사

화려한 가을이다. 형형색색의 단풍 때문이다. 산은 온통 노랗고 붉게 치장해 '만산홍엽(滿山紅葉)'의 절경을 선사한다. 그래서 이맘때면 화려하게 수놓은 단풍여행에 나서는 인파로 북적댄다. 10월의 설악 단풍은 가을철 최고의 볼거리로 손꼽힌다. 웅장한 산과 골짜기를 따라 곱게 물든 단풍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다.

울산바위, 흔들바위 등 설악산 명소를 가려면 거치는 곳이 조계종 제 3교구본사인 신흥사다. 사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불상이 반긴다. 크고 웅장하지만, 자비롭고 온화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통일대불(統一大佛) 청동좌상이다. 반세기 동안 겨레를 갈라놓은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는 민족의 비월인 국토통일을 이루고자 설악산보다 더 크고, 동해보다도 더 오랜 대불의 광명에 통일염원을 이루고자 만들었다. 이 석가모니불은 1987년 8월에 착공했고, 14.6m의 높이에 108톤의 청동이 소요됐다. 한 중국인 관광객이 신발을 곱게 대리석 위에 벗어놓고 정성 가득 절을 한다. 아마도 자신 가족의 안녕을 비는 것 같다. 불상 앞에는 불자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1987년 8월에 착공한 통일대불 청동좌상은 14.6m 높이에 108톤의 청동이 소요된 신흥사의 대표적 성보다.



종각 뒤 산에 물든 단풍이 곱고 화려하다.

신라 진덕여왕 7년(653년) 자장 스님 창건
한국전쟁 이후 제 3교구 본사로 승격 이관
지역 사회복지사업에 매진, 새바람 일으켜
1995년 寺名 첫 머리 '禪' 서 '新' 으로 바뀌

다. 절 이름을 신인이 길지를 점지해줘 흥왕하게 됐다 해서 신흥사라 한 것이다.

한국전쟁때 고성군 건봉사 전소돼 영동지역의 대본산 기능이 마비됐을 무렵 고암, 성준 두 스님의 원력으로 신흥사를 제3교구 본사로 승격해 업무를 이관했다. 이후 신흥사는 영동지역 포교에 앞장서며 여러 주요 불사를 펼쳤다. 대표적인 것이 속초노인 복지관을 비롯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헌신하는 대표적 사찰로 자리잡았다. 이렇게 지역서 새 바람을 일으키자 신흥사가

과거의 신흥사가 아니라 새로운 신흥사가 되었다는 의미로 신흥사의 첫 머리인 귀신 신자(神字)를 시대에 맞게 새로운 신자(新字)로 고쳐 사용하자는 중론이 일어났으며, 1995년부터 영동불교를 새로 일으킨다는 서원을 담아 신흥사(新興寺)로 바꾸기도 했다. 도량엔 단풍과 함께 새 바람이 가득하다.

속초 신흥사=김주일 기자



신흥사 중심전각인 극락보전 전경

설악산 국립공원 이용안내

설악산 가는 길 (서울 기준)
자가용 서울→ 서울춘천고속도로→ 동홍천 IC(1시간25분)→ 원통→ 미시령→ 척산온천 → 설악동소공원주차장(1시간35분)→ 설악동 탐방지원센터(도보 3분)
버스 고속버스티미널/동서울터미널→ 속초시외버스티미널(2시간20분)→ 소공원주차장(30분 7,7-1번 시내버스)→ 설악동탐방지원센터(도보 3분)

<케이블카 이용안내>

- 운행시간: 7시30분~17시30분
- 이용요금: 소인(37개월 이상~초등학생) 6천원, 대인 9천원(중학생 이상)
- 특이사항: 예약불가, 현장 구매만 가능

설악산 탐방로

대표소가 위치한 소공원은 설악산케이블카와 천 년 역사를 가진 사찰 '신흥사'가 인접해 가장 인파가 몰리는 장소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행되는 케이블카는 소공원에서 권금성으로 이어지며 외설악과 동해의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도보로 10분 내외면 봉화대의 인락암을 만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소공원 왼쪽 통일대불을 지나 금강교를 지나면 따뜻한 차 한잔을 나눌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세시교를 지나면 신흥사가 나온다. 고즈넉

권금성, 외설악과 동해 조망

비선대, 비룡폭포 등 볼거리

한 절터를 돌아 뒷길로 빠져 나오면 비룡폭포, 비선대 등으로 향하는 이정표와 함께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된다. 시원한 물소리가 청아하게 울리는 계곡길을 따라 걷다보면 자연의 경이로움에 취해 지친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설악산의 탐방로는 매우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개개인이 취향에 따라 등반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가벼운 산책과 함께 가을 단풍놀이를 기대한다면 양복 3~4시간 정도 소요되는 양복코스나 흘림골코스가 적당하다. 반면 가을산을 오르는 등산이 목적이라면 백담사나 장수대를 거치는 탐방로를 추천한다.



보제루(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4호)

신흥사의 성보문화재는?

▲보제루(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4호)

1770년(영조 46)에 세워진 것으로, 장대석으로 2단 쌓은 기단 위에 정면 일곱 칸, 측면 두 칸의 홀 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이 건물은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선방과 요사채로 둘러싸여 있는 마당을 둘러싸 사찰 중심의 영역의 공간성을 확보해 준다. 건물의 하부는 기둥으로

만 구성된 열려있는 공간으로 극락보전으로 가는 통로가 된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규모가 커진 모습을 보여 주는 보제루 내에는 법고와 목어, 대중, 경판이 보관되어 있고 몇몇의 현판과 중수기가 걸려 있다. 이 중에는 이 사찰이 왕실의 원찰(願刹)이었음을 보여 주는 현판이 걸려 있다.

▲향성사지 3층 석탑(보물 제443호)

향성사지 3층 석탑은 2중 기단 위에 3층의 몸통을 세운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따

르고 있으며, 몸통과 지붕돌은 각기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다. 각 층 몸통에는 양쪽으로 모서리 기둥을 지붕돌 아래로는 5단의 지붕돌 받침을 조각했고, 탑 꼭대기에 있던 상륜부는 모두 없어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9세기 무렵인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처음 해체 수리작업을 할 때 3층 탑신석 중앙에서 사리구멍을 확인하였으나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석탑의 높이가 4.33m로 장엄하면서도 간결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국제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바랍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는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 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러운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풀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기획원장 법성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총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승,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송운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